

1. 서울 소재 주택 중 평면 형태가 ㄷ자형인 것은?

- ① 삼각동 도편수 이승업 가옥 사랑채
- ② 안국동 윤보선가 안채
- ③ 삼청동 오위장 김춘영 가옥 안채
- ④ 옥인동 윤씨 가옥 안채

2. 삼국시대의 불교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삼국은 종교를 통해 왕권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장대한 불교사원 건설에 적극적이었다.
- ② 초기에 중국 건축과는 구별되는 독립적인 건축술을 확립하였다.
- ③ 7세기경 석탑의 등장은 중국 건축이 동아시아에서 보편성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고유의 창의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.
- ④ 일본의 초기 절터인 아스카지(飛鳥寺)와 호류지(法隆寺)는 한반도의 건축기술이 이전된 사례이다.

3. 조선시대의 궁궐 건축 및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선 초기 관료들에게 도시는 상업이 번성하는 소비 장소가 아니라, 유교적 질서가 바로서는 예가 살아 있는 장소로 인식되었다.
- ② 도성의 성문은 국가적 예제를 실현하는 장소로서 정확히 각 방위에 맞추어 여덟 군데에 설치되었다.
- ③ 세종은 경복궁을 법궁으로 사용하면서 궁성의 정문을 광화문(光化門)으로, 금천 위의 석교(石橋)를 영제교(永濟橋)라 명명하였다.
- ④ 근정전 앞뜰에 품계석을 배치하고 동쪽에는 문관, 서쪽에는 무관이 서도록 하였다.

4. <보기>에서 고려시대의 건축물을 모두 고른 것은?

—<보기>—

- ㄱ. 강릉 임영관 삼문(강릉 객사문)
- ㄴ. 예산 수덕사 대웅전
- ㄷ. 영주 부석사 조사당
- ㄹ. 연탄 심원사 보광전

- ① ㄱ
- ② ㄷ, ㄹ
- ③ ㄴ, ㄷ, ㄹ
- ④ ㄱ, ㄴ, ㄷ, ㄹ

5. 조선시대의 불교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태조는 1397년 신덕왕후 강씨를 위해 흥천사(興天寺)를 세워서 이곳을 조계선종의 본사가 되게 하였다.
- ② 유교를 믿어오던 세조는 숭유억불(崇儒抑佛) 정책을 실시하고 불교를 철저히 배척하였다.
- ③ 16세기에 퇴계 이황 집안은 기제사를 절에서 지냈다.
- ④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드물게 남아 있는 3층 불전 중 하나이다.

6. 조선시대 건축의 목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선 초기 지방 관아 건물에는 일반적으로 주심포 형식이 사용되었다.
- ② 조선 초기 궁전이나 성문 등 국가 시설에는 다포형식이 주로 사용되었다.
- ③ 16세기에서 17세기 전반기를 지나며 조선의 독창적인 구조기법인 익공형식이 나타났다.
- ④ 조선 중기 이후 다포형식의 공포를 구성하는 각 부재의 독립성이 강해지고, 쇄서는 점차 단순해진다.

7. 수원 화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화성의 입지로 교통의 요지가 아닌 군사적 요충지가 선택되었다.
- ② 화성 안 중심부에 십자가로를 만들고 주변에는 상점을 위치시켰다.
- ③ 정약용은 평지에 건설되는 성곽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문에 옹성을 두고, 성벽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치성을 만들고 그 위에 대포를 설치한 포루를 두었다.
- ④ 서양의 기술서적인 『기기도설(寄器圖說)』을 참고해 고안한 거중기(舉重器)는 축조의 효율성을 높였다.

8. 건축물 중 용도가 다른 것은?

- ① 구례 운조루 ② 담양 소쇄원
- ③ 영양 서석지 ④ 대전 남간정사

9. 고려시대 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평양성은 궁궐을 삼중의 성벽으로 감싸고, 황성 정문에서 가로 중심부인 십자로까지 도로로 연결하고 장랑을 갖추는 등 개경보다 한결음 나아간 도시 구성을 하였다.
- ② 개경의 도시 구성은 경주의 도시 구성을 이어 받아 규칙적이고 네모반듯했다.
- ③ 개경은 동남쪽이 높고 서북쪽이 완만하게 경사진 곳에 대지가 조성되어 궁궐이 건설되었다.
- ④ 개경의 행정구역을 5부(部) 35방(坊) 344리(里)로 설정하였다.

10. 일제강점기 한국인 건축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박동진(朴東鎭)은 1930년대 중반부터 활동하였는데, 보성전문학교 본관과 도서관을 설계하였으며, 건축 전문지 『건축조선』을 발간하였다.
- ② 박인준(朴仁俊)은 미국 미네소타대학을 졸업한 유학파로 가회동의 윤치호, 윤치왕, 윤치창 씨 대를 설계하였다.
- ③ 박길룡(朴吉龍)은 1919년 경성고등공업학교를 졸업하고 경성제국대학 본관, 화신백화점, 한청빌딩, 김연수 주택 등을 설계하였다.
- ④ 강윤(姜鈞)은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고, 보리스건축 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으며, 한식과 양식을 절충한 태화기독교사회관을 설계하였다.

11. 익산 미륵사와 경주 황룡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두 사찰은 백제와 신라의 고대 왕권이 만든 거대가람으로, 두 사찰의 탑은 삼국시대 건축의 핵심으로 평가된다.
- ② 진흥왕에서 선덕왕 사이에 조성된 황룡사 2차 가람 공사에서 9층 목탑이 건축되었다.
- ③ 미륵사는 세 금당 앞에 각각 탑을 놓은 삼원식(三院式)가람이라는 것이 특징이다.
- ④ 두 사찰은 구릉지의 지형과 물길의 조건에 순응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사찰 건축이다.

12. 조선시대 양난 이후의 사찰 건축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선 후기 사찰들은 대부분 주불전 앞마당이 중심이 되어 전면에 누각이 자리잡고 마당 좌우에 요사채가 놓여 중정형을 이루었다.
- ② 양난 이후의 승려들은 사찰 복구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, 관아나 왕실 관련 건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.
- ③ 17세기 이후 사찰 내부는 실내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대들보를 위로 올리고, 불상을 실내 뒤편으로 후퇴시켰다.
- ④ 사찰 내·외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주불전을 다포형식으로 하고 창살에는 꽃무늬, 충량(衝梁) 머리에는 용 장식을 하였다.

13. 조선시대 주택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- ① 조선시대 주택은 예제의 영향으로 사당을 갖추고, 집터와 집의 크기 그리고 장식을 규제하였지만 명문화되지는 않았다.
- ②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당 설치의 고려 말 유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 조선 초기에는 잘 지켜졌다.
- ③ 대청마루는 의식 절차를 치르는 장소로 중요성이 높았다.
- ④ 16세기 초에는 제주도에 온돌이 보급되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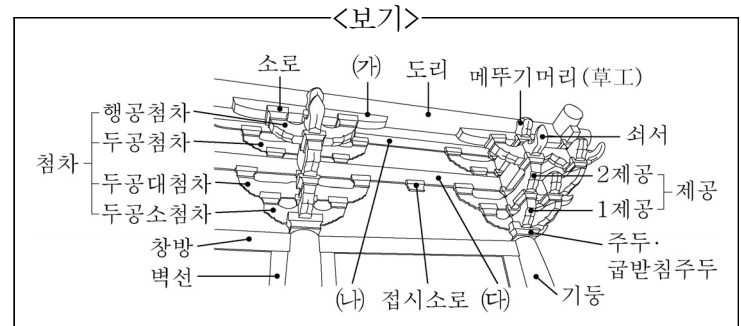
14. 서울 소재 건축물 중 「문화재보호법」상 등록문화재는?

- ① 서울 정동교회 ② 서울 대한의원
- ③ 구 서울특별시청사 ④ 서울 경교장

15. 일제강점기 근대 도시와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선총독부는 1912년부터 1920년대 후반까지 시구개정(市區改正) 사업을 벌였는데, 가로 정비를 적극적으로 실현하였다.
- ② 탁지부 건축소는 1910년 한일합방 이후의 건축업무를 담당해 조선은행과 총독부청사 등을 지었다.
- ③ 총독부는 도시 노동자들의 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 조선주택영단을 세워, 5종류의 표준설계도를 마련하였다.
- ④ 일제강점기 신주택지에 건설된 서양식 외관의 주택을 문화주택이라 한다.

16. <보기> (가)~(다)의 명칭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?



- | | (가) | (나) | (다) |
|---|-----|-----|-----|
| ① | 단소로 | 뜯장혀 | 도리 |
| ② | 단장혀 | 뜯도리 | 장혀 |
| ③ | 단장혀 | 장혀 | 뜯장혀 |
| ④ | 단소로 | 장혀 | 단도리 |

17. 한국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건축에 벽돌이 사용되지 않다가, 개항 이후 서양식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.
- ② 일본은 군산과 목포의 역사(驛舍)에 일본의 목조 양식을, 부산과 신의주 역사에는 서양의 고전양식을 채택하였다.
- ③ 18세기 이후 관찬읍지가 사찬읍지를 압도하며 발간되었다. 그중 『여지도서』가 대표적인데, 『동국여지승람』과 항목 및 체제가 현격히 다르고 거리와 방위를 알 수 있는 채색 지도가 첨부되었다.
- ④ 19세기 후반 재래식의 목조건물은 19세기의 기술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한층 세련된 공간구성을 갖추고 기술적으로도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었다.

18. 고려시대의 불교와 사찰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고려시대에는 왕실에서 서민에 이르기까지 불교가 신봉되었으나, 왕실의 기복을 비는 원찰은 도성 안에만 조성되었다.
- ② 연등회나 팔관회는 종교의례를 넘어 왕과 백성을 잇는 국가의례로 개최되어 사찰은 종교공간인 동시에 정치적 기능도 수행하였다.
- ③ 혜음원은 개경과 남경 사이를 왕래하는 행인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어진 절이며, 왕의 행차에 대비하여 별원(別院)도 축조되었다.
- ④ 신라시대에 창건된 금산사는 11세기에 중창되었으며, 본원, 광교원, 봉천원의 세 구역으로 구성되고 각 원에는 3층 전각이 지어졌다.

19. 고종의 즉위 후에 이루어진 경복궁 중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경복궁 중건은 서원 철폐와 함께 왕권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.
- ② 중건된 경복궁은 창건 때의 기본 골격을 재현함과 동시에 건물의 명칭도 그대로 따랐다.
- ③ 교태전은 연회 때 사용되던 건물로, 건물 뒤에 작은 언덕을 조성하여 아미산(蛾眉山)이라 하고 벽돌로 문양을 장식한 굴뚝을 세워 후원 분위기를 연출하였다.
- ④ 고종은 궁궐 안 북쪽 중앙 가장 한적한 곳에 창덕궁의 낙선재나 연경당과 유사한 주택풍의 건청궁을 세워 왕비와 지내고자 하였다.

20. 서원과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조선시대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은 숙수사(宿水寺)라는 절이 있었던 곳이다.
- ② 향교는 잡상이나 용두 등을 볼 수 없고 대성전마저 익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절제된 단순미를 보여준다.
- ③ 서원은 선현에 대한 제사공간과 학생들을 모아 강학하는 공간으로 나누어진다. 초창기인 16세기에는 제사의 비중이 높다가 점차 강학의 기능이 강조되었다.
- ④ 『증보문헌비고(增補文獻備考)』에 성균관의 대성전은 5칸이며 각 주와 각 부의 대성전은 3칸이라고 기록되었으나,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작은 고을의 향교라도 5칸으로 건립되었다.

이 면은 여백입니다.